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2021.1.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벤처 1세대가 주축이 된 국내 최초 **기업가정신 전담 기관**
- 설립 목적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과 창업기반 조성 (설립허가 : 2010.12)
- 이사장 :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황철주 이사장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임원진



고영하 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김재철 대표
(에스텍파마)



김태곤 대표
(파이온텍)



남민우 대표
(다산네트웍스)



박상일 대표
(파크시스템스)



안건준 회장
(벤처기업협회)



오기웅 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은경아 대표
(세라트)



이은정 대표
(한국맥네티)



장흥순 대표
(블루카이트)



정성인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조현정 대표
(비트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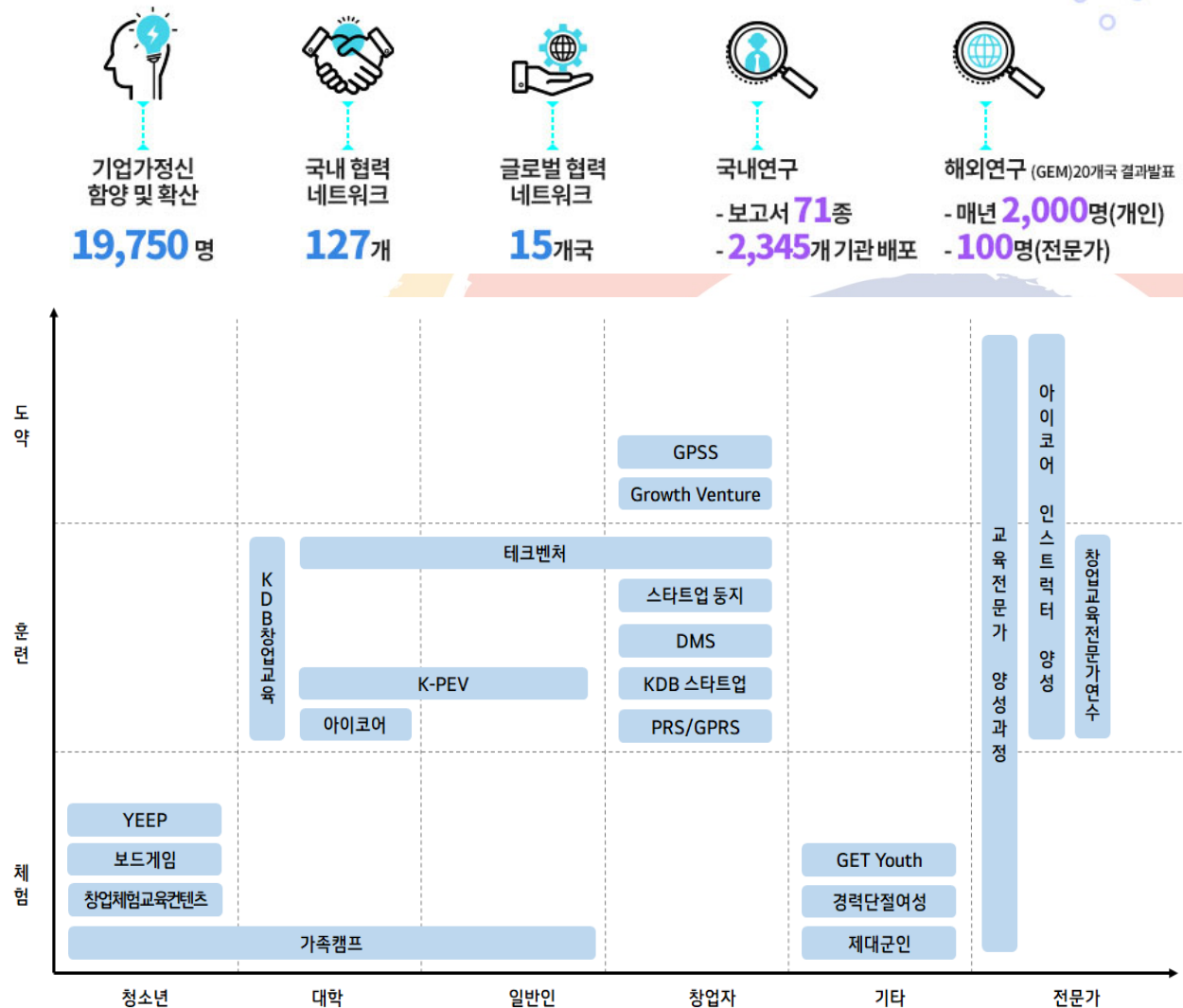


김영수 사무총장
(상임이사)



강문현 감사
(前 안진회계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GEM? 기업가정신 순위?



매일경제

2020년 07월 01일 수요일
A01면 종합

칠레에도 밀린 한국 기업가정신 죽어간다

바운스백
코리아

매일경제·전경련 공동분석
韓기업가정신 OECD 26위

한국 제조업 부활의 근간인 기업가 정신 지수가 10년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에 대한 직업 선호도는 급락했다. 창업보다는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제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과 더불어 대기업 정서에 발목 잡힌 한국 산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30일 매일경제와 전경련경제인연합회 공동 분석한 '기업가정신 OECD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A4·5면
이번 조사는 OECD 국가 중 데이터가 부족한 2개국(아이슬란드, 콜롬비아)을 제외했고, 최신의 공통 통계로 비교 가능한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경련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자주화해 국제 비교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008년에도 27위였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창업 활동이 활발한 북유럽 국가나 중부 유럽 소국에서 순위가 높았다.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룩셈부르크(3위), 핀란드(4위), 노르웨이(5위)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쟁국 중에선 독일(8위)이 10위권에 포함됐고, 미국(11위)과 일본(25위)도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선 빠졌다. 한국은 중남미의 칠레(21위)나 동유럽 예스토니아(17위)에도 순위에서 밀렸다.

이번 조사는 각 나라의 △기업가에 대한 사회 평판 △기업가에 대한 직업 선호도 △규제를 비롯한 경제 제도 △경제활동 참가율 △대기업 비중(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 정도) △사업체 수 △기업 체감경기(미세 투자 의지) △기업과 개인의 법률 신뢰·준수 수준 등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만들었다. 한국은 규제 등 경제 제도(27위), 대기업 비중(27위), 기업 체감경기(34위)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업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22위로 급락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6위였던 지표다. A4면에 계속

특별취재팀

매일경제

2020년 07월 01일 수요일 A04면 종합

▶ A1면서 계속 칠레에도 밀린 한국...기업가정신 죽어간다

기업을 지금보다 좀 더 키워 보려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취약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경쟁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린다는 뜻"이라며 "경영 환경과 규제 등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 평판 부문도 한국은 14위로 독일(3위), 영국(4위), 미국(5위) 등 경쟁국들에 비해선 상당히 낮았다.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난해 1만2004명(만 13~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인들의 기업가적 지향성(2017년 49.1→2019년 46.4), 기업가적 역량(49.6→47.9),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51.5→50.2)과 같이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업가정신을 살리고 제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교육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준우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공 교육은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

기업가정신 지표별 한국 순위

구분	한국 순위	1위 국가
기업가에 대한 사회 평판	14위	이스라엘
기업가 직업 선호도	22위	네덜란드
규제 등 경제제도 수준	27위	핀란드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9위	스위스
대기업 비중	27위	스위스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	4위	체코
기업 체감 경기	34위	리투아니아
기업·개인의 법률 신뢰·준수 수준	20위	핀란드

※ OECD 35개국 대상 2017년 공통자료 기준. 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주요국 기업가정신 순위

스위스	1
뉴질랜드	2
룩셈부르크	3
핀란드	4
노르웨이	5
네덜란드	7
독일	8
미국	11
일본	25
한국	26

다"며 "교육부 주도의 다양한 직업 교육과 함께 부모가 되거나 교사가 될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제조업 스타트업이 적은 것은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와 Big Rebound, 국내의 재발견과 로컬

매일경제

코로나가 쏘아올린 공... 누가 먼저 'Big Rebound'를 잡을 것인가

코로나를 10대 트렌드

모든 일상적 안전이 최우선

소비 영역까지 확 바뀔것

개인주의·집합 문화도 확산

스트리밍·멀티크 시장 팽창

한반도가 코로나19는 역병의 세계 곳곳에서 발원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수만마리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잘 통제되고 있다거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는 다들스스로는 소식이 들리며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세계 각국 경제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인원을 이후 사태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Big Rebound 시대가 온다

Be safe	일상생활 속 안전이 1순위
Individualism	개인주의 강화
Gourmet at home	음식보다는 집밥
Replacement Market	대안시장 성장
Education at home	교육의 부상
Beyond Experience	비대면 문화 확산
Online of Old boys	온라인 초복 확산
Upgraded Social media	SNS 기능 강화
Non Face-to-Face work	비대면 업무
Domestic-oriented	국내의 재발견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외부 활동에 대한 자기방어 기제가 매우 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Big Rebound'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Big Rebound은 이제 몇 가지 소위 트렌드로 정립된다.

우선,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종의 소비 패시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려할 것이다. '안전'을 1순위로 삼고, 다음으로 '가격'을 2순위로 고려한다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40~50대 남성이 거의 매일 요리하는 데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과거 대비 22% 이상을 증가시켜 예측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방구촌, 본교와 같은 '온라인 교육' 시장도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주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70% 이상 늘고 있다.

2020년 04월 24일 목요일 B05면 기획

朝鮮日報



모충림의 로컬리즘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전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국내 여행으로 쏠리고 있다. 국제 이동이 과거와 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강원도 여행자의 숙박 예약이 여름까지 잦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국내 도시가 밀려오는 여행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해외 여행자를 유치하려면 2박 3일 체류 인프라가 기본인데 아직 이를 충분히 갖춘 국내 도시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현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싶은 여행자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체류 인프라는 도시가 아닌 동네와 마을 단위에서 구축해야 한다.

체류 인프라, 동네·마을 단위로 구축해야

다행히 2010년대 이후 지역 발전의 주체가 도시에서 동네로 전향되고 있다.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된 동네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역에서 브랜드 파워로 관광자원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다. 2박 3일 여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시설이 늘어났다.

작은 마을에서도 동네 전체를 '호텔'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동네를 호텔로 구성하면 여행자가 2박 3일 체류하기에 무엇이 충분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마을이 전통적인 민박에서 벗어나 마을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호텔의 대표적 모델이 일본 도쿄 아사카의 하나호텔이다. 마을 중앙에 호텔이 위치할 수 있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숙박, 목욕, 세탁, 식사, 자전거 렌탈, 선물 등은 동네의 일반 업소에 위탁한다. 서울 서교동 로얄시티, 서촌 서촌유유, 공주 병영초, 정선 18번가 등이 동네 상업 시설을 연결한 한국의 마을호텔이다.

도시를 살리는 커뮤니티호텔

규모가 더 큰 지역은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과 여행자가 교류할 수 있는 라운지를 운영하는 커뮤니티호텔 중심으로 숙박·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대표적 커뮤니티호텔이 미국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에이스호텔이다. 동네의 라운지를 표방하는 이 호텔은 힐링(heal)한 도시라면 하나 있어야 하는 공간 시설

로 만들었다. 에이스호텔은 도시를 살리는 호텔로도 알려져 있다. 이 호텔이 들어선 호텔 주변으로 블랜드는 호텔 취향과 비슷한 가게들이 상권을 형성한다. 스타벅스가 한 가리를 바꾼다면, 에이스호텔은 동네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 에이스호텔의 매력은 로컬 문화 체험이다. 일지 선점,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레스토라트와 바 메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로컬 예술가, 크리에이터와 협업한다. 그 결과 한곳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호텔을 디자인한다.

한국 호텔업계에도 커뮤니티호텔을 지향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제주 선산에서 시작한 플레이스캠프는 20~30대 취향의 숙박과 상업 시설뿐 아니라 미술, 요가, 요스, 라틴댄스, 아로마 등, 해설·스포츠 등 지역 자원과 호텔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토요일 플라멩코 파티와 주빈과 호텔 부속에게 인기다. 제주 버드라디오, 강릉 워크스페이스, 속초 소노229 등도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된 여행 프로그램으로 도시 여행자를 유치한다.

한지 문화 체험 제공해야 성공

위기에 빠진 지역에 희망을 주는 동네 브랜드와 골목 상권을 추동하는 힘은 체험 경제다. 최근 온라인에서 재광하지 못하는 오프라인의 경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여행 트렌드도 이에 따라 자연과 역사에서 지역 문화로 옮겨갔다. 예컨대 체험과 공감을 위한 로컬 여행은 명승지 위주로 여행하는 기성세대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밀레니얼 사이에서 이미 보편적인 여행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체험 경제와 로컬 여행이 확대되면서 주민과 여행자가 교류하는 공유 숙박, 마을호텔, 커뮤니티호텔이 동네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동네 지원을 연결하는 숙박 시설이 2박 3일 체류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로컬 여행자들은 여행자를 위한 인프라가 아니다. 동네에서 높은 삶의 질과 다양성을 원하는 주민도 수혜자다.

지역 선점의 영원한 숙제는 다거림이 제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일이다. 지역에 진정한 현지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와 로컬 크리에이터의 몫이다. 아무리 자본력이 큰 대기업이라도 지역마다 지역 문화를 구현하는 호텔을 건설하기 어렵다. 지자체도 해외 디아스포라 등 지역 문화와 동떨어진 관광 시설 유치보다는 지역 자원 개발로 승부해야 한다. 탈산업과 시대의 지역 발전은 지역의 생활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제와 여행자를 유치하는 동네에서 시작된다.

한제교+골목길+자연+저자

서울 서교동 로얄시티+공주 병영초+정선 18번가 등은 상업 시설 연결해 도시 살리는 마을호텔 조성

포틀랜드 에이스호텔 주변에 취향 비슷한 가게 들어서 스타벅스가 거리를 바꾼다면, 호텔은 동네를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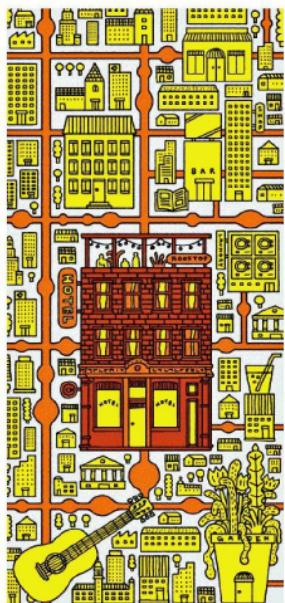
제주 플레이스캠프는 로컬 체험형 커뮤니티호텔 지향 대기업 못 하는 서비스 발굴로 지역 숙박 해결해야

힐링(heal)한 도시라면 하나 있어야 하는 공간 시설

로컬 문화 체험 제공해야 성공

지역 선점의 영원한 숙제는 다거림이 제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일이다.

해외여행 대신 '2박 3일'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서울 서교동 로얄시티+공주 병영초+정선 18번가 등은 상업 시설 연결해 도시 살리는 마을호텔 조성

포틀랜드 에이스호텔 주변에 취향 비슷한 가게 들어서 스타벅스가 거리를 바꾼다면, 호텔은 동네를 바꾼다

제주 플레이스캠프는 로컬 체험형 커뮤니티호텔 지향 대기업 못 하는 서비스 발굴로 지역 숙박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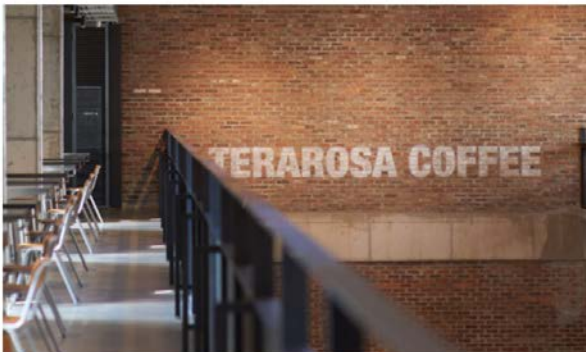
힐링(heal)한 도시라면 하나 있어야 하는 공간 시설

로컬 문화 체험 제공해야 성공

지역 선점의 영원한 숙제는 다거림이 제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시대, 지역 혁신 사업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뜬다

A 김경열 기자 | © 송인원 2020.08.21 17:01



강릉에 본점을 두고 있는 '테라로사커피' 토고/출처=테라로사커피 홈페이지 업적

강릉에 본점을 두고 있는 '테라로사커피' 토고/출처=테라로사커피 홈페이지 업적

강릉에 본점을 두고 있는 '테라로사커피' 토고/출처=테라로사커피 홈페이지 업적

강릉에 본점을 두고 있는 '테라로사커피' 토고/출처=테라로사커피 홈페이지 업적

강릉에 본점을 두고 있는 '테라로사커피' 토고/출처=테라로사커피 홈페이지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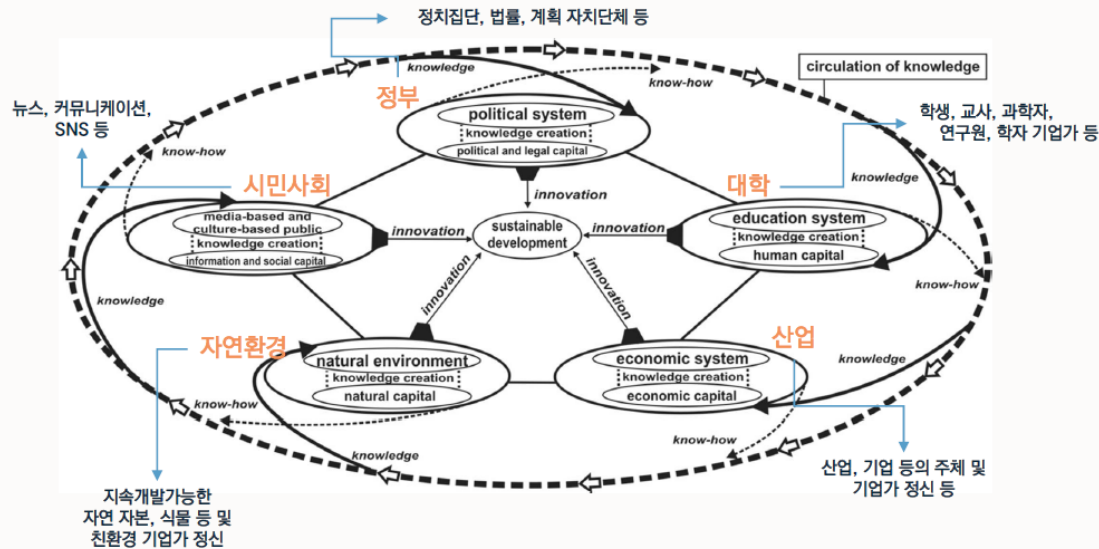
Quintuple Helix와 로컬

2019 기업가적 대학 아젠다 워크숍

2019. 4. 12.



대학-기업-정부 핵심으로 상정하던 Triple-Helix에서 새로운 행위주체가 추가되면서 n-tuple Helix로 확장된 새로운 혁신은 인류의 보전, 생존 및 활력, 새로운 녹색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역량과 로컬

WEF는 5년 후 회사나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의 1/3이 바뀔 것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등이 중요한 스킬
 각각의 스킬은 연관된 것으로 융합적 스킬배양이 필요

Top 10 skills

in 2020

1. Complex Problem Solving
2. Critical Thinking
3. Creativity
4. People Management
5. Coordinating with Others
6. Emotional Intelligence
7.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8. Service Orientation
9. Negotiation
10. Cognitive Flexibility



Source: Future of Job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in 2015

1. Complex Problem Solving
2. Coordinating with Others
3. People Management
4. Critical Thinking
5. Negotiation
6. Quality Control
7. Service Orientation
8.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9. Active Listening
10. Creativity



4차산업혁명시대 직장인의 필수요구 역량

2015년	2020년
1. 복합적 문제 해결	1. 복합적 문제 해결
2. 대인관계 역량	2. 비판적 사고(↑ 2)
3. 인적자원 관리 역량	3. 창의성(↑ 7)
4. 비판적 사고	4. 인적자원 관리 역량(↓ 1)
5. 협상력	5. 대인관계 역량(↓ 3)
6. <u>품질관리 역량(out)</u>	6. <u>감성지능(new)</u>
7. 방향설정 역량	7. 결정력(↑ 1)
8. 결정력	8. 방향설정 역량(↓ 1)
9. <u>경청능력(out)</u>	9. 협상력(↓ 4)
10. 창의성	11. <u>융통성(new)</u>

생태계 격차와 로컬

東亞日報

2020년 06월 29일 월요일 A16면 사회

서울, 창업생태계 47조 가치... 세계 20위

270개 도시 조사서 첫 '톱 20'

"유니콘 매출-R&D 역량 돋보여"

게임-생명과학 산업 강점

자금조달-기술인력 매칭은 미흡

미실리콘밸리 1위, 베이징 4위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 '스타트업 지놈'이 해마다 진행하는 도시별 창업생태계 조사에서 서울시가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390억 달러(약 47조 원)로 추정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놈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 2020(GSER 202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타트업 지놈은 매년 100여 개 나라 270개 도시(실리콘밸리 등 지역 포함)를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와 정책, 투자 여건 등을 조사해 연간 보고서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첫째 30위에도 못지 못했지만 지난해 차세대 유망 생태계를 의미하는 '넥스트 30'에 포함됐다. 올해는 '톱 30'을 넘어 처음으로 '톱 20'에 진입했다.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 2위는 뉴욕과 런던이 각각 차지했다. 아시아 도시로는 중국 베이징(4위), 상하이(8위), 일본 도쿄(15위), 싱가포르(17위) 다음이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순위 상승 원인으로 고성장

글로벌 도시 창업생태계 순위

1 미국 실리콘밸리	11 미국 워싱턴
2 미국 뉴욕	1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영국 런던	13 프랑스 파리
4 중국 베이징	14 미국 시카고
5 미국 보스턴	15 일본 도쿄
6 이스라엘 텔아비브	16 독일 베를린
7 미국 로스앤젤레스	17 싱가포르
8 중국 상하이	18 캐나다 토론토-워털루
9 미국 시애틀	19 미국 오스틴
10 스웨덴 스톡홀름	20 대한민국 서울

자료: 글로벌 창업생태계 리포트 2020(GSER 2020)

스타트업의 등장과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10곳 중 9곳이 서울에 있다.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 27곳 중 20곳도 소재지가 서울이다. 전 세계 유니콘 매출 상황을 보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도시들은 2015년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나 2019년 46%로 줄었다. 이 자리를 서울, 도쿄, 싱가포르 등이 채우고 있다.

R&D 투자의 경우 한국은 조사 대상인 38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3%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시는 최근 1750억 원을 투입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부터 R&D,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 패턴이나 교통수단 선택, 기후 등 서울시가 수집한 각종 빅데이터를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이나 개인들의 사업과 및 연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스타트업 지놈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식 축적 항목에서 서울시 만점을 받았다. 특허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생태계의 활동성과 관련해서는 투자회수(Exit) 기업이 많고 성공한 스타트업 비율이 높은 점이 우수한 평가의 요인이 됐다. 2년 이상 스타트업 경력을 가졌거나 영여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력이 많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했다.

반면 사업 초기 단계 투자 규모와 성장률과 같은 자금조달 부문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인력들의 매칭 측면 역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를 39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실리콘밸리(6770억 달러)의 5.8%지만 조사 대상 도시 평균(105억 달러, 약 12조6000억 원)의 약 3.7배다. 세부 산업 중에서는 게임과 생명과학 산업이 강점을 지닌 것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GSER 2020을 기반으로 서울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하고 창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승부처로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Startup Genome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0

The New Normal for the Global Startup Economy and the Impact of COVID-19

crunchbase

Deep Dive 로컬

Deep Dive 로컬



Deep Dive 로컬

ADE (Affordable Design & Entrepreneurship)

뱁슨 컬리지의 대표 창업강좌

AFFORDABLE DESIGN AND ENTREPRENEURSHIP



Students learn to become leaders that can address the well-being of people living in poverty through design and entrepreneurship

Courses + Placement program

Site visits

Engaged

Studying

Practicing

Leading

Inter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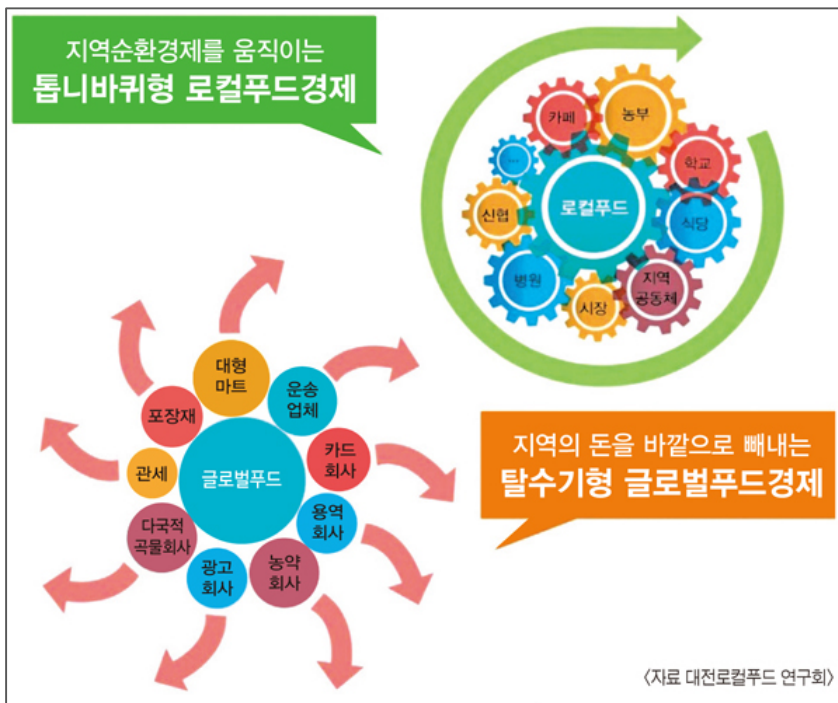
Multi-campus
Course

Mission driven
company/NGO

A new social venture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Deep Dive 로컬

로컬 콘텐츠 태동

로컬의 힘은 로컬 자체가 아닌
제2의 고향을 만드는 콘텐츠



coworking
co-living Localstitch

history branch membership partnership join Members'



2013.9월 오픈 당시 모습

“
2013년 서교동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동네호텔로 시작한 로컬스티치는 현재 8개 지점,
100개의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purpose

Local(각 지역 전문가와 콘텐츠) + Stitch(연결하다.)

로컬스티치는 2013년 글로벌 노마드를 위한 서교동의 작은 골목 호텔에서 시작해, 2015년 국내최초 '코워킹과 코리빙이 결합된 공간'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마포구를 중심으로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스티치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동네에 필요한 공유공간을 기획·설계하고 청년주거와 공유 오피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지점엔 동네의 특성과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공유공간을 두어 로컬스티치 멤버들이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오가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교점에는 루프탑 파티공간, 성산점에는 세미나실, 대흥점에는 코워킹 카페, 연남장점에는 노마드를 위한 주거공간, 연남점에는 지역상점과 가게, 소공점에는 넓은 카페 라운지와 지하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로컬스티치 멤버는 여러 혜택을 누리며 각 지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ep Dive 로컬

로컬 콘텐츠 태동

로컬의 이야기 쌓기 (O) 0로수길, 00리단길 (X)

로컬전성시대 - 로컬의 최전선에서 전하는 도시의 미래 Q | [아는도시 1](#) [무료배송](#) [소독결제](#)

어반플레이 (지은이) 어반플레이(URBANPLAY) 2019-03-04



도시생활혁명 - 도시를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Q | [아는도시 2](#) [무료배송](#) [소독결제](#)

어반플레이 (지은이) 어반플레이(URBANPLAY) 2020-04-08



도시 트렌드를 앞서 읽는 여섯 가지 키워드

로컬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일하고 탐구하는 32명의 생생한 이야기

‘로컬’이 뜨고 있습니다. ‘맛집’, ‘핫플’, ‘힙한 동네’ 같은 단순한 측면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모여 지역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의 성격과 부합하는 트렌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크고 높은 빌딩 사이에서 작고 세밀한 나만의 취향을 찾다니고, 그러한 취향을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갈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코워킹, 코리빙, 살롱, 로컬미디어 등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합니다.

이는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산·춘천·속초·광주·제주 등지에서도 가업을 잇거나 창업하는 방식으로 동네를 가꿔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로컬이 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게 소개하거나 파편적으로만 언급할 뿐, 전체를 깊이 있게 담은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로컬 전성 시대>는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가지 키워드**로 나누고, 각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2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0%, 1,500원 할인)
마일리지	750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
세액감액	61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
배송료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
수령예상일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 최근 1주 96.0% (중구 중립동 기준) 지역변경

Sales Point : 405 ?
★★★★★ 10.0 100자평(0) 리뷰(1) [이 책 어때요?](#)

[카드/간편결제 확인 >](#) [무이자 할부 >](#)

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물하기](#)

[보관함 +](#)

[전자책 출간알림 신청 >](#) [종교 등록알림 신청 >](#) [종교로 팔기 >](#)

Deep Dive 로컬

로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대기업-지자체-전문 스타트업 local rise, localized, localizing



창업 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군산을 활성화시킬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참가하세요!

Local:Rise

도시를 흥건시키는 데 필요한 시너지를 제공하며, 부활의 기회를?

프랜차이즈는 지역을 7개소로 나누어 다양한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Revitalize City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군산'이다. (주)Local:Rise

지역 활성화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인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필요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 지역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이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창업 지원금, 2. 창업 교육, 3. 창업 멘토링, 4. 창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창업 지원금, 2. 창업 교육, 3. 창업 멘토링, 4. 창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재생의 공공성을 해킹하다

2019.11.30(토) 13:00-18:00
코스모 40

유흥산업시설의 재생, 운영과 공공성 발현
부천아트벙커 B39 & 코스모40

류효봉, 부천아트벙커 B39 / 노리단 대표
성문식, 코스모40 디렉터
모더레이터: 한선경, 씨앗 대표

임팩트 투자, 어떻게 도시재생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읽기

백수현, 공공그라운드 대표
한상엽, SOPOONG 대표
모더레이터: 성문식, 코스모40 디렉터

도시재생의 출발점으로 공공성을 해석하다
부여 자운길과 로컬라이즈 군산

백경아, 코리아 리빙 라이프 인 부여 / (주)세컨 대표
조상배, 로컬라이즈 군산 파트너 / 언더독스 대표
모더레이터: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

“요새 군산이 그렇게 HIP 하다며?”

SK E&S, 도시를 충전하다!

Local:Rise Cafe & Select Shop

SK Careers Journal

Deep Dive 로컬

로컬 활성화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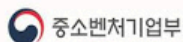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본사업 44억 + 추경 44억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가 모집공고

신청기간
3월 26일(목) 17시까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창업지원 사업 탄력적 운영으로
신청기간 연장됨



별첨

이 자료는 2020년 6월 3일(수) 16:00 국무회의
사항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창업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 등
창업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충

* (예비창업패키지) 1,700→2,200명(+315억원), (초기창업패키지) 980→1,080개(75억원)
(지역로컬크리에이터) 140→280개(+44억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18호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비)창업가 모집공고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 (투자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예산 및 규모

4,400백만원, 140명 내외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는 (예비)창업가

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도록 지원



I·SEOUL·U

서울특별시

NEXT LOCAL

서울청년, 로컬의 미래를 UP하다

창업지원금 최대 7천만원 지급

모집기간
19년 8월5일(월)
~ 8월31일(토)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만19~39세) 대상 100여 명
주요활동	2개월 지역자원 조사 및 사업모델 발굴 6개월 사업모델 검증 및 사업화
활동기간	2019년 9월 ~ 2020년 4월
지원내용	지역조사 활동비 (1인당 100만원, 총 2개월) (1차) 최대 2천만원 (2차)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활동지역	존선 영월 전주 군산 논산 익산 상주 및 기타 지역 *6개 지역 자회사 무대
접수문의	seoul.nextlocal@gmail.com 070-7008-0206 / 02-2133-4457-8
접수방법	www.nextlocal.co.kr 에서 치용서 다운로드 및 이메일 접수

NEXT LOCAL 또는 넥스트로컬을 검색해주세요 🔍

서울특별시 | 서울경제 | 서울신문 | 서울경제TV | 서울경제라디오 | 서울경제신문 | 서울경제방송 | 서울경제신문사 | 서울경제신문그룹 | 서울경제신문사 | 서울경제신문그룹 | 서울경제신문사 | 서울경제신문그룹

로컬

